

經

經營情報「시스템」의 導入

營

—企業經營에 있어서 合理的인

經營情報「시스템」樹立이 必要하다—

論

高麗大學校 講師

韓 柱 燮

叢

1. 序 論

自由競爭經濟體制下에서의 企業의 成敗는 變化가 甚하고 複雜한 企業環境에 어떻게 適應하는가에 달려있다. 企業內的인 事項은 勿論 外的인 諸與件이 變動에 따라 即刻的으로 適切한 意思決定을 하여 最良의 政策을 講究하는 것은 經營의 基本的인 目標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意思決定者로서의 人間은 그 能力에 있어서 限界가 있으므로 人間の 記憶, 經驗, 識見만으로는 適切한 意思決定을 하기가 不可能하다. 즉 適切한 意思決定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經營情報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現在 大部分의 企業은 無數히 많은 情報資料를 處理하고 있으며 그 種類도 用途에 따라 多樣하다. 經營管理機能을 「콘뜨라 오든넬」이 分類한 바와 같이 企劃, 組織, 人事配置, 指示命令, 統制의 5個機能으로 본다면 이들 各 機能은 業務遂行을 위해서 適切한 情報가 必要하며 遂行過程을 통하여 많은 情報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筆者가 그間 企業經營 診斷業務를 통하여 經驗한바 이러한 情報가 適時性, 劃一性, 完全性, 繼續性 및 正確性등의 缺如에서 效率的이고 效果的인 利用이 不可能하게 되는 例를 흔히 보아 왔다.

이러한 事實은 많은 費用을 投入하여 獲得한 經營情報가 不合理하게 處理되어 제 구실을 못하게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現代의 企業經營은 情報資料에 의하여 運營效率을 極上化 하여야 하는 것이 必須要件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企業은 經營에 必要한 情報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獲得하여 利用 할 것인가에 대해서 研究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報告制度를 樹立하여 情報「시스템」, 節次, 帳票 및 文書, 設備, 其他를 利用하며 適切한 情報處理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情報處理組織을 經營情報「시스템」이라고 定義하여 볼수 있는바 美國에서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며 通常 MIS의 略語로서 表記하고 있다. 그런데 MIS와 EDPS를 혼돈하여 同

目	次
1. 序 論	經營情報「시스템」의 意義와 必要性
2.	經營情報「시스템」의 管理
3.	經營情報「시스템」의 開發
4.	韓國에서의 經營情報「시스템」의 導入上의 問題點
5.	結 論
6.	

一한 內容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것은 엄연히 區別하여야 하겠으며 情報處理에 있어서 迅速성이 要求되고 있는 點에서 EDPS가 곧 MIS인것 처럼 誤認되고 있는 듯 하다.

完全 On-line-System에 의한 EDPS는 그것 自體가 MIS로 보여질 수 있으며 MIS全體가 EDPS化 하였다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같은 經營條件下에서는 完全 EDPS화 한다고 하는 것은 꾀이나 어려운 일이며 「카나다」鐵道와 美國의 「지 엠」社의 경우도 약 30~40% 程產가 EDPS에 의한 情報處理를 하고 있는 實情임에 비추어 本稿에서는 「매뉴얼오퍼레이손」에 의한 情報「시스템」을 다루어 大部分이 企業의 現狀에 맞는 情報「시스템」을 研究하여 보기로 한다.

2. 經營情報「시스템」의 意義와 必要性

經營情報「시스템」이란 말은 1960年 美國의 經營者協會의 年次大會에서 主要「테마」로 登場함에 따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根源을 찾아 보면 오래전부터 軍事「시스템」의 「콘트롤 시스템」에서 부터 始作되어 1960年에 와서 民間企業에서 導入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있어서 MIS의 構造에 대한 定說은 다음의 몇가지로 說明할 수 있다.

① 電子計算機와 通信機器를 道具로 하여 經營情報網을 이룬다. ② 이것에 의해서 實績把握을 確實히 하므로써 計劃과 統制를 보다 正確히 한다. ③ 會社各階層에 適切한 經營情報를 迅速히 提供한다. ④ 即時處理方式의 電子計算機의 出現으로 인한 經營情報에 큰 變化가 惹起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MIS에의 構成要素로서 電子計算機가 必須的인 것으로 취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1年 美國經營者協會에 經營情報「시스템」의 本質에 대하여 論議한 바 MIS는 科學의 意思決定을 目的으로 하며 經營計劃과 「콘트롤」을 改善하기 위하여 適時, 適正, 綜合的인 資料를 經營者에게 提供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64年 「디아딘」(J. Diadin)의 論文에서 ① 電子計算機는 複雜한 「시스템」을 「콘트롤」할 能力이 있으나 經營問題解決에는 限界가 있다. ② 電子

計算機는 經營上層의 政策 및 目的決定「레벨」에는 아무런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③ 「電子計算機를 政策 및 目的決定「레벨」에 適用할 때에는 企業에 重大한 損失을 가져온다」라고 하며 MIS를 EDPS와 分離하여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IS의 內容에 대해서 아직도 뚜렷한 定說이 없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는 것이다.

筆者의 意見으로서는 MIS의 概念을 廣義的인 解釋으로서 單純한 小規模의 手作業에 의한 記錄文書와 報告書에서 부터 大規模의 複雜한 EDPS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事務管理領域을 包括하는 內容으로 理解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MIS는 諸經營階層에 있어서 業務遂行上 必要로 하는 情報를 必要한 時期에 提供하기 위한 效率的인 事務組織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事務組織은 小規模의 經營組織에서는 쉽사리 다루어 질 수 있으나 經營組織이 複雜해지고 各機能間에 보다 많은 協調事項이 發生하게 되면 事務組織에 많은 問題點이 惹起되는 것이다. 經營事務의 效率性 즉 情報處理의 生産性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企業內外에서 發生하는 無數한 情報를 必要에 따라 取捨選擇하고 蒐集, 記錄, 分類整理하여 貯藏하고, 適時, 適正, 情報를 意思決定者에게 傳達해주는 過程에서 合理的인 業務處理가 要求되는 것이다. 이러한 效率性은 一定한 方法과 節次를 따름으로서 實現되는바 經營情報處理의 「시스템」化에 의하여 效果의으로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즉 企業全體의 觀點에서 必要한 各種 情報를 經營業務別, 問題別, 部門別로 그 流過程을 有機的으로 組織化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經營情報「시스템」의 管理

經營情報는 事務室의 製品이라고 할 수 있다. 事務室에서의 大部分의 業務는 情報의 蒐集, 處理, 記錄, 傳達業務에 屬하는 것이다. 이러한 業務는 處理方法, 設備器具의 標準化 및 事務工程管理의 合理的인 技法에 의하여 效率的인 情報獲得이 可能하게 되며 情報生産性을 向上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情報와 經營을 여러 角度에서 相互 聯關性을 맺고

있다. 情報은 經營情報 「시스템」에 의하여 展開되므로서 經營管理의 意味에서 檢討되며 情報가 어떻게 發生하여 蒐集, 處理, 傳達되는가의 問題가 深刻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近來에 있어서 情報問題의 大部分이 이러한 方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 經營管理의 側面에서 情報은 發生, 提供하는 側과 要求, 利用하는 側이 共히 發生, 蒐集, 處理, 傳達의 方法에 있어서 合理性을 기해야 하며 價値가 있는 情報를 適時에 適은 費用으로 處理하여야 한다. 現代社會에 있어서 經營情報의 洪水狀態가 企業經營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經營에 있어서 情報의 蒐集, 處理, 傳達에 관한 管理는 事務管理의 領域에 包含되는 것이다.

그 理由의 하나는 事務管理가 經營의 全機能에 관한 間接的 「스텝」의 機能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面에서는 方法論에 있어서 生産管理와 近接한 分野로 생각될 수 있으나 事務管理의 製品으로서의 情報은 無形이며 그 種類가 多樣하므로 具體的, 計量的表現이 困難하다. 「인프트」의 要因으로서의 情報 「데이터」나 「프

로세스」의 設備와 그 工程上의 管理등도 生産管理에서와 같이 數量的 端的인 適用이 可能하지 못하다. 이러한 事實은 製品으로서의 情報나 原料로서의 資料는 無形의 知識이므로 具體的인 表現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情報은 經營의 各業務에 緊急聯關性이 있고 業務에 따라 企業內外에 廣範圍하게 業務別, 部分別, 階層別로 分散되므로 蒐集, 處理, 傳達등이 意思決定者의 任意判斷에 의하여 決定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므로 때로는 同一情報가 二重으로 蒐集, 處理, 傳達되는 경우가 있으며 必要以上の 情報를 要求하거나 重要한 情報를 傳達하지 않는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理由에서 經營情報 「시스템」의 合理的이고 體系의인 經營이 要求되는 것인 바

첫째로 經營情報의 基準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즉 意思決定을 위해서 어떠한 情報가 必要한가를 決定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情報의 標準, 品質, 數量, 時期, 費用등이 包括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情報의 種類는 使用目的 및 그 頻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 한다.

情報의 目的 및 頻度別 分類

頻度別	日 別	週 別	月 別	季 別	年別 其他
報 告		週別報告	月別報告	季別報告	年別 資料
運 營	日別運營	週別運營	月別運營		其他
計 劃	日別計劃	週別計劃	月別計劃	季別計劃	
統 制	日別統制	週別統制	月別統制		

(註) 위의 資料는 1969年 筆者가 「카나다」의 經營診斷用役會社인 P.S. Ross & Partners와 共同으로 參加한 鐵道廳 經營診斷時의 「노트」에서 얻어진 것이다.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營情報는 그 使用目的에 따라 報告, 運營, 計劃, 統制의 네 가지로 나누며 使用頻도에 따라 日別, 週別, 月別, 季別, 年別의 다섯가지로 나누어 진다.

이들 經營情報는 使用目的과 頻도에 따라서 要求되는 情報의 品質과 時期 및 量은 各各 다르며 情報를 必要로 하는 組織階層에 따라 많은 差가 있다. 經營情報는 그 報告期間이 길면 길수록 許用誤差가 크고 運營과 統制目的을 위한 情

報는 計劃目的을 위한 情報보다 正確性을 期해야 하며 經營組織의 上層에 갈수록 近似值로서 足하게 된다.

둘째로는 決定된 經營情報를 獲得하기 위한 具體的 計劃의 樹立이다.

經營에 必要한 情報는 個個의 企業에 있어서 經營業務에 따라 다르나 企業에는 經營業務遂行에 必要한 「시스템」이 設定 되어 있으므로 經營業務를 調査分析 하므로써 明確히 드러나게 된

다. 機能別 業務과 여기에 包含되어 있는 單位 職務 및 遂行節次가 確認되면 業務遂行을 위한 意思決定과 意思決定에 必要的인 情報의 質, 量, 時가 導出되는 것이다. 즉 企業業務의 豫測, 分析調査에 의해서 業務의 組織과 遂行節次「시스템」이 明確히 드러나게 되고 必要的인 情報가 明確해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들 情報獲得을 위한 最適「시스템」이 設立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重要視할 事項은「시스템」의 單純化, 標準化, 適時, 適正性, 正確性, 會計資料의 最大活用 및 費用節減등이 된다.

예를들면 販賣業務를 分析調査한 결과 必要的인 情報資料로서 外部經濟動向, 當該製品의 市況, 他企業과의 競爭, 市場占有率, 販賣實績 등으로 나타났다면 이를 獲得하기 위해서 어떠한「시스템」을 통해야 할 것이며 그 遂行方法, 즉 組織化, 節次化 및 「시스템」의 方向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로 이들 機能別 情報「시스템」을 企業全體의인 觀點에서 調整하며「토탈 시스템」화 하여야 하는 것이다.

勿論 特定企業에 있어서 目的達成에 必要的인 全業務의「시스템」을 設計하며 確定하는 일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上層經營者로부터「마케팅」生産, 財務, 購買, 人事 및 其他 全機能別「씨부 시스템」을 設計하며 이것을「토탈 시스템」화 하는 것은 企業環境의 變化가 甚한 今일에 있어서 많은 難關이 있는 것이다. 企業의 經營業務는 全機能이 相互密接한 聯關性이 있으므로 必要로 하는 經營情報自體도 部署間에 劃一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在庫品 發注決定은 在庫量이 發注點에 到達하면 自動的으로 行하게 되는데 이것은 倉庫課에서 通報되는 것이다. 發注點의 決定에는 여러가지의 要素가 考慮되어야 하는바 여기에는 첫째로 發注費用(輸送費包含) 둘째 年間使用量 셋째 在庫費用 넷째 發注에서 到着까지의「리드타임」등이 考慮된다.

購買課에서는 發注點에 到達한 在庫品을 購買할 것인가를 決定하기 위해서 購買課에서 얻어진 發注費用 및 「리드타임」과 生産課에서 얻어지는 年間使用量, 倉庫課에서 얻어지는 在庫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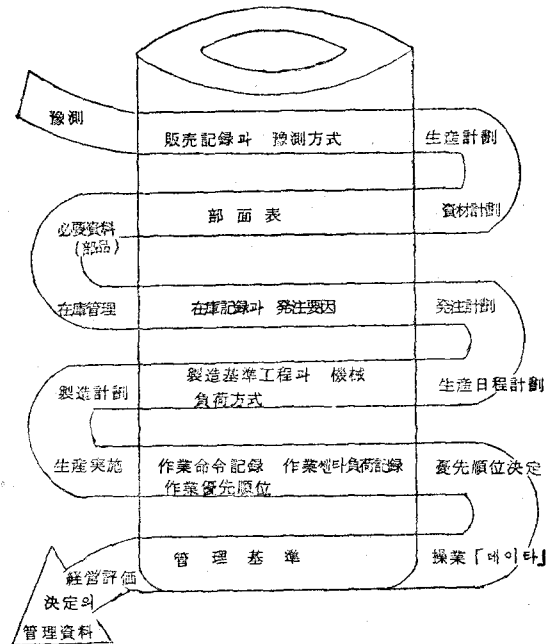
用(主로 經理課의 計數資料에서)을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攄으로써 비로서 適切한 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豫測은 販賣部署에서 行한 市場調査資料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보면 經營情報의 어느 하나도 獨立的으로 分析되어 使用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즉 企業全體의 事務組織에 部分的인 存在로서 部屬品의 役割을 해야 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製造企業의 共通的인 基本業務는 다음의 6가지이다.

- 1) 販賣豫測 2) 資料計劃
- 3) 在庫管理 4) 生産日程計劃
- 5) 生産實施 6) 審査分析

이러한 業務는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의인 聯關性이 있으므로 意思決定에 있어서 綜合的인 分析檢討가 要求된다.

綜合經營 管理 方式圖



다음에 이들 經營業務가 어떻게 檢討되어 情報「시스템」화 하는가 알아 보기로 한다.

4. 經營情報「시스템」의 開發

위에서 論한바의 經營業務는 企業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으며 그 遂行方法, 節次 및 責任部署에 있어서도 組織 및 經營政策上 問題로 인

해서 相異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一般的으로 製造會社의 경우 經營業務「시스템」의 흐름은 需要豫測으로부터 始作하여 製品開發, 販賣受注, 生産設計, 資材調達, 製造, 出荷納品, 代金回收의 段階를 거치고 있다. 이것은 經營業務의 基本的節次로서 反復的으로 행해지며 經營業務活動의 基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業務의 效率的인 遂行을 위해서 業務의 構成要素間에 一定한 關係를 맺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스템」化에 의해서 達成되는 것이다.

經營業務遂行에 있어서 情報「시스템」은 個個企業의 特性에 適合하여야 하는 것이 基本要件으로 되어 있는 바 企業의 目的, 業種, 規模, 管理水準 및 經營者, 從業員등의 知識水準이 主要事項이 되는 것이다. 「시스템」은 그 具備要件으로서 ① 目的에 대해서 單純해야 하며 ② 適切한 融通性 및 伸縮性이 있고 ③ 信賴도가 있으며 ④ 經濟적이고 ⑤ 「시스템」運營者에게 쉽게 適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시스템」開發의 必要性은 經營上의 理由에서 發端하는 것이므로 經營業務活動에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企業內에서의 經營組織 事務規程 業務分掌規程 및 業務遂行節次등은 主要研究對象이 된다.

「시스템」研究의 主要節次를 說明하면 一般的으로 다음과 같다.

- 첫째 : 經營業務遂行에 있어서의 問題點把握
- 둘째 : 現業務「시스템」과 業務內容 및 業務量把握
- 셋째 : 經營業務資料의 分析檢討
- 넷째 : 經營上 要請되는 問題點과의 調整
- 다섯째 : 新「시스템」의 立案
- 여섯째 : 新「시스템」運營計劃樹立 및 實施

經營業務遂行上의 問題點은 主로 實務者와 經營上部에서 提示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로는 「시스템」專門家의 觀察에서 把握되는 경우도 있다. 分析資料는 比較的 廣範圍하나 組織圖表 業務指針 業務分掌規程등은 主要資料가 된다. 會計指針 또는 會計規程은 現 財務統制業務 및 事務節次를 理解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事實이 把握되면 現행 制度上 使用되고 있는 諸書類樣式的 蒐集檢討가 다음 段

階로 행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各種報告書와 指示, 計劃命令書까지도 包含되어야 하는데 表面上에 나타나는 業務 흐름에서 實際的인 情報內容의 흐름을 把握하기 위한 것이다. 業務와 比較하여 各組織段階別로 要求되는 經營情報은 무엇이며 發生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運營, 統制, 計劃過程에서 適合性 與否등이 檢討되어야 한다. 그런데 筆者가 觀察하여 본 바로는 可能的 限 會計記錄資料를 中心으로 資料의 利用性을 分析해볼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理由로서는 會計處理上의 問題로 인하여 會計資料는 企業마다 一次的인 具備要件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會計資料는 會計處理上의 目的과 經營政策上의 目的을 둘다 만족 시켜 주므로써 資料의 利用率을 높이고 資料의 重複性과 二重業務處理를 막게 되며 時間的, 物的, 人的 努力의 浪費를 排除할 수 있다. 위의 檢討分析過程에 追加하여 新「시스템」의 樹立에 勘案되어야 하는 事項은 現在의 經營陣의 經營方策的인 要素가 加味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 지라도 經營陣에서 要求하는 情報資料가 生成되지 않으면 效果的인 「시스템」運營을 期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經營에의 原則的인 問題는 且置하고라도 個個企業의 經營上 特殊與件에 따라 適切히 調整되어야만 한다.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重役의 業務는 서로 같을 수 없다. 中小企業의 社長의 業務가 大企業에서는 部課長의 業務에 屬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반면에 中小企業의 係員의 業務를 大企業의 部課長이 處理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事實은 業種別로 같은 例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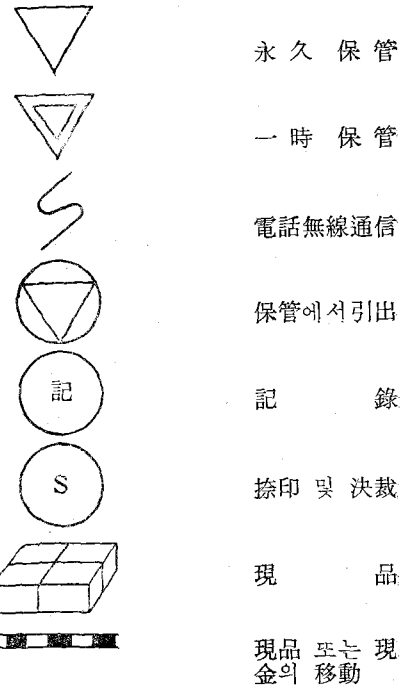
다음의 段階는 經濟性 效率性등을 考慮하여 「시스템」의 「차아트」化이다. 從來의 業務處理節次는 業務處理 規定과 事務分掌規程 및 各種指針命令등에서 業務遂行節次를 알 수 있었던 것인데 規程解釋上의 差異와 不明確性등으로 인하여 많은 混雜을 惹起하였고 擔當者 以外에는 明確히 把握치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業務遂行의 遲延의 要素가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의 「차아트」化는 이러한 觀點에서 그 使用이 時急한 것이다. 그 技法과 表現에 있어서 많은 研究가 要求되고 있다. 筆者가 事務管理

診斷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 과정이詳細히表記되는 것으로서 쉽게追跡할 수 있는長點이 있다. 이것은組織別「후로우 차아트」(Organizational Flow Chart)라고 하는바 이以外の 것은單純「후로우 차트」라고 불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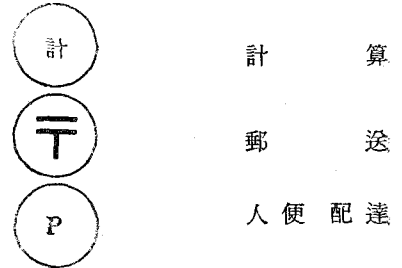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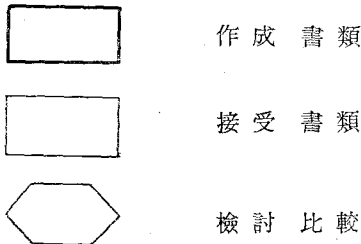
여기에서 사용되는記號는 다음과 같으며筆者가適切히改善 내지 創案해 낸 것이다.

다음에 “A”製造企業에 있어서 生産計劃 樹立節次에 따르는 業務處理節次와 經營情報「시스템」을 說明하여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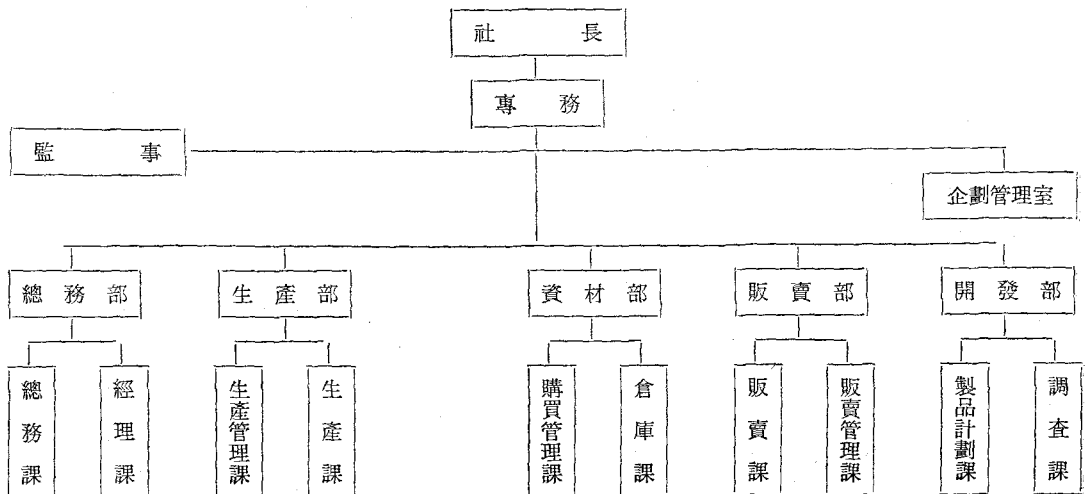
아래의 組織圖에 나타난 業務部署는 人事, 財務, 生産, 購買, 販賣, 開發 및 企劃部署로서 業務分野는 ① 技術情報管理 ② 在庫管理 ③ 販賣豫測 ④ 所要資材計劃 ⑤ 能力計劃 ⑥ 日程計劃 ⑦ 進度管理 ⑧ 購買管理 ⑨ 綜合企劃으로 分類하여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情報資料의 흐름은 다음의 圖表에서 볼 수 있는바 業務內容은 ① 販賣分析, ② 技術, ③ 在庫管理 및 日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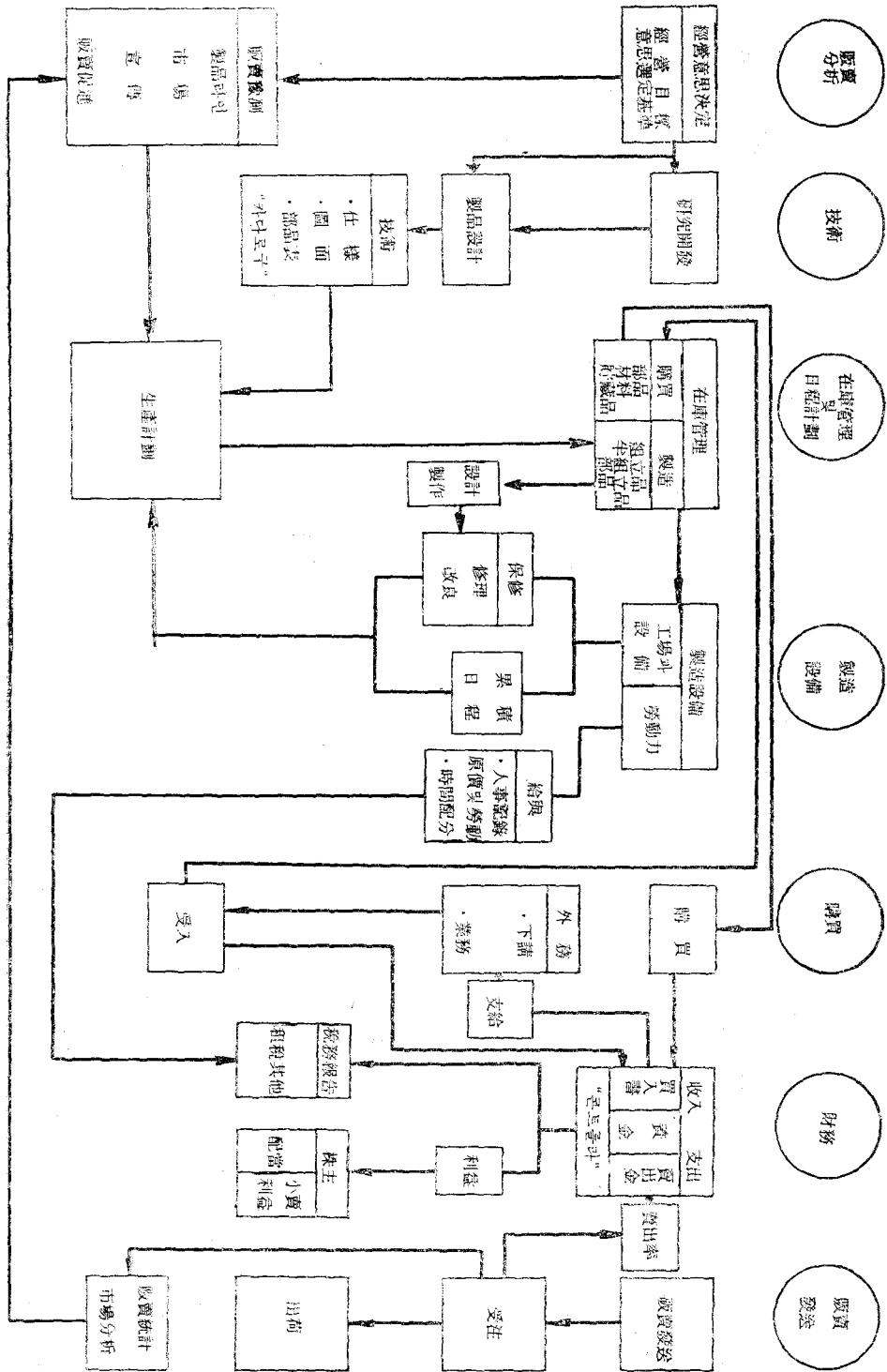
「후로우 차트」記號



“A”製造企業의 組織圖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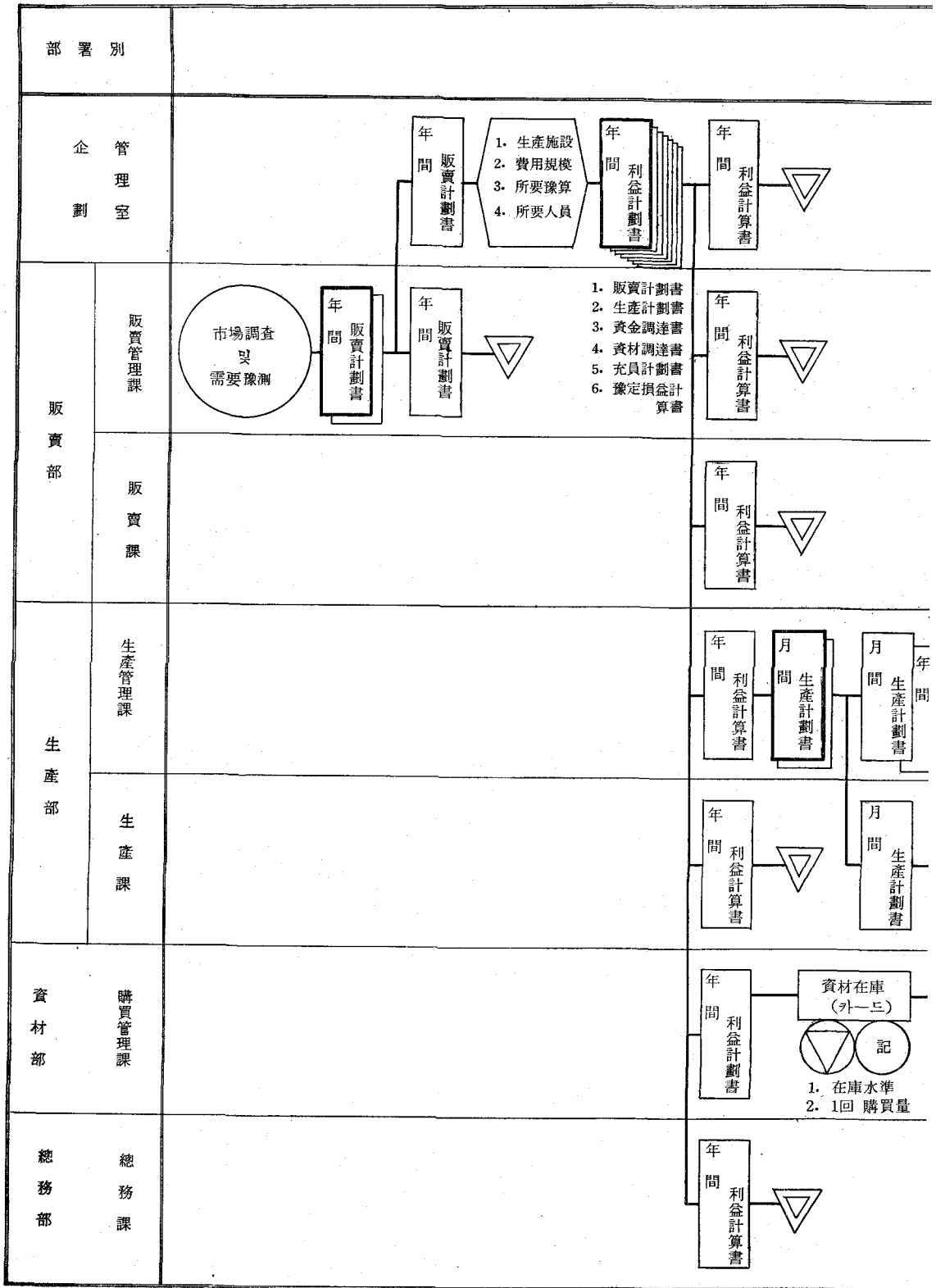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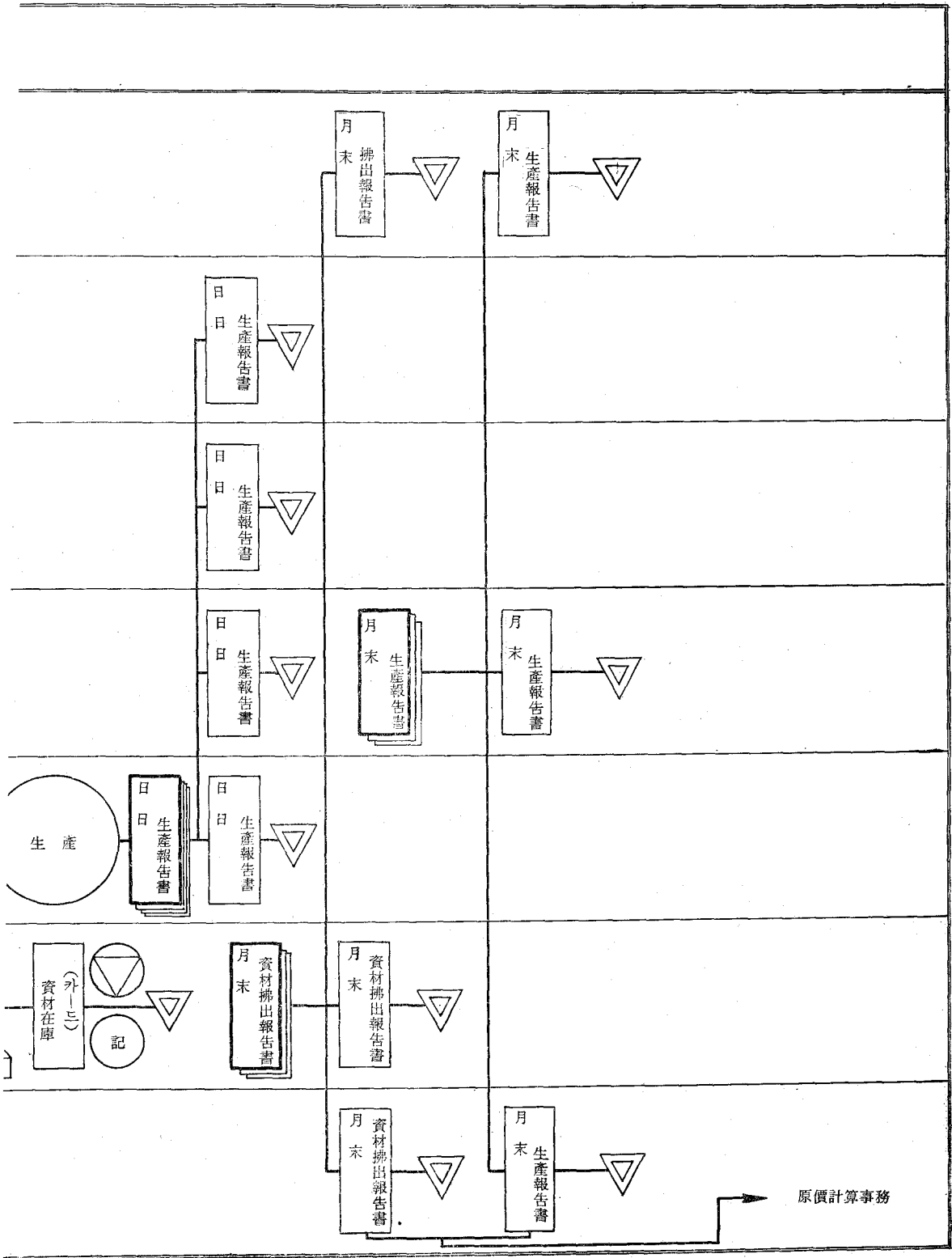
A 製造會社에 있어서의 原料의 流通圖



計劃, ④ 製造設備, ⑤ 購買, ⑥ 財務, ⑦ 販賣 發送이 된다.

위의 圖表에 나타난 業務關係를 그 遂行方法 아트에서 보든 마와 같고 본 圖에서는 紙面關와 節次에 따라 圖示하여 보면 다음 「후로우 차 係로 그 一部分의 圖示이 그쳤다.





原價計算事務

5. 韓國에서의 經營情報「시스템」의 導入上의 問題點

우리나라에서 經營情報「시스템」이 導入된 것은 극히 最近의 일이다. 1968年初에 政府各部署에서 經營情報「시스템」의 現代化를 위한 EDPS의 導入을 위한 움직임이 보였고 現在 이미 몇몇 部處에서는 基礎作業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鐵道廳의 경우에는 이미 數年前에 EDPS 課를 新設하여 經營情報「시스템」의 EDPS化 作業을 끝낼 段階에 있으며 經營全般에 걸친 情報「시스템」에 대해 1969年度에 「카나다」 診斷用役會社인 P.S. Ress & Partner에 의해 研究된 바 있으며 筆者도 本診斷에 參加하였다. 「시스템」의 거의 全部가 「차아트」化 하였으며 위에서 說明한 方法을 利用하였다.

한편 民間企業體에서도 柳韓洋行과 金星社가 EDPS의 導入으로 經營情報「시스템」의 現代化에 열에 先鋒의인 役割을 하고 있다.

이러한 情報「시스템」의 現代化 물결은 주로 大企業에 있어서 크게 作用하고 있으나 中小企業에서 있어서도 適切한 情報「시스템」의 現代化 作業이 要求되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情報「시스템」의 現代化 過程에서 우리는 많은 問題와 先行條件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로 無條件 情報處理의 機械化 傾向이다. 從來의 手作業에 의한 情報處理를 機械化 하므로써 時間의 短縮을 가져오는 것은 事實이나 非經濟性, 非熟練에서 도리어 情報「시스템」의 複雜化 및 非效率의인 運營을 自招하는 例가 許多하다. 情報「시스템」의 現代化는 반드시 機械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고 合理的인 方法에 의하여 適性, 適正, 經營情報를 意思決定者에게 提供하는 것으로서 手工業에 의해서도 充分히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擔當職務別 必要情報의 明確化이다. 一般의으로 우리나라의 企業의 生態는 1人經營의 特徵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므로 企業內에서 發生하고 있는 事實은 무엇이든지 最高 經營管理者는 把握하고 있어야 한다는 古式的인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사장

이 經營最下位에서만 把握하고 있어도 充分한 事項을 報告하라고 命令하는 식의 經營원칙에 어긋나는 事例가 있다면 이것은 自身の 業務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에서 招來되는 것이며 보다 중요한 내용의 業務를 포기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過大한 經營情報「시스템」을 要求하게 되며 情報의 重複性, 또는 非效率性 등으로 인하여 企業의 經營資源을 浪費하는 結果가 된다.

셋째로 明確한 業務分擔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기에는 業務의 橫的인 分化和 더불어 縱的인 分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部와 部課와 課係와 係의 業務가 明確히 分擔되어야 하며 縱的인 關係에 있어서도 部長 課長 係長 係員의 할 일이 區分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必要로 하는 情報는 그 質과 量 및 時期에 있어서 다르게 되며 效率의이고 보다 簡素化한 「시스템」이 可能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로 新情報의 追加에 따르는 情報「시스템」이 補完問題이다. 往往 企業規模가 肥大해 지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全體的인 「시스템」을 檢討하지 않고 情報源으로부터 直接的인 別個의 「시스템」을 追加하는 例가 大部分이다. 이것은 既存 「시스템」의 破壞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며 不必要하게 複雜하고 過重한 情報를 生成하게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情報를 必要로 하거나 「시스템」改善이 要求될 시는 部分的인 作業으로 끝내지 말고 全般的이고 綜合的인 檢討를 해야 한다.

6. 結 論

以上에서 企業의 經營情報「시스템」에 대하여 그 必要성과 設立方法에 대하여 考案하였다. 經營情報「시스템」單純한 物的 人的 組織과는 달리 知識의 連結體라고 하는 高次元의인 組織인 것이다.

그러므로 情報「시스템」의 效率的인 經營을 위해서는 合理的인 經營組織과 業務體系는 勿論 企業組織全構成員의 協同의 精神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겠다. 經營情報「시스템」은 短期間에 큰 變革을 이트켜서는 안되며 長期的으로 서서히 繼續的인 研究檢討에 의해서 設定되려 하는 것이므로 企業內에 專門의 「시스템」「스텝」組織들이 研究토록 해야 한다.